

원산지 표시방법·위반업체 모바일로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시행 오늘부터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지자체 무인발급기서 발급 가능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위반업체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5일부터 농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농축산물 220개와 수입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161개, 국내 가공 농축산물 가공품 257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직접 인쇄해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음식점 부문으로 나눠 제공된다.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농축산물의 경우 대상품목을 입력한 뒤 원산지 유형 선택→원산지 표시유형 선택 및 입력→수입·통관 시 원산지 국가명 입력→원산지 혼합의 경우 해당 항목

선택→원산지와 비율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양념장 등의 가공식품과 '사골우거죽국' '김치볶음밥' 등의 음식점 가공료 주원료 원산지 표시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는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모바일 앱 '농식품안전이 앱'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에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도 포함됐다.

농관원은 공표 범위를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업

체는 업체 이름과 품목, 내용 등을 12개월 간 공표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와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며 "카드뉴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100여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분쟁 15개월 만에 스톡딜 합의 글로벌증시 상승에 코스피 회복세 '가속' 전기전자 업종 실적 기대...투자 심리 개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15개월 만에 부분합의(스토폴딜)를 이뤄냈다는 소식으로 안도감이 글로벌증시에 상승했다. 양국은 이틀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은 당초 15일 2500억 달러(30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당초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외국인의 금융회사 소유제한 폐지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환율개입을 금지하는 환율협정에 사실상 합의하고 미국은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 다우 지수가 500pt(+1.95%)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1단계 협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관세정책이고 2단계 혹은 3단계까지 진행될 지적재산권 및 중국의 강제기술이전 등 민감한 부분(수출규제, 투자제한)에는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의견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지만 국내의 상황에 따라 일축각발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우려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당장 급한 불은 꺼졌지만 중국이 협상에서 시간적 여유를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협상판단 기준은 재선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에 두고 있어 4분기에도 협상 관련뉴스에 따라 글로벌증시는 지속적으로 일회일비 할 수 있다.

4분기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를 살펴보면 단연 미중 무역협상의 추가진행사항이 으뜸이지만 동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감행 가능성, 그리고 규모는 축소됐지만 격화되고 있는 홍콩시위를 들 수 있다.

지난 주 코스피 지수도 미중 무역협상 소식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 금요일 협상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며 2044pt까지 반등했고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632.95pt까지 반등했다. LG전자가 3분기 매출 15조6990억과 영업이익 7811억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잠정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도 반도체 재고감소와 디스플레이 및 IT·모바일사업부 실적개선으로 매출 62조원, 영업이익 7조7000억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34조6000억원과 2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와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감소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여성스프라이드 반도체업종이 추가적인 침체보다는 바닥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되며 국내 주력업종인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탄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심리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구조상 8월이후 5조원 이상 순매수하며 시장을 선도하던 연기금의 추가매수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미중 스톡딜 타결로 중국위안화화 함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인다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중무역분쟁, 글로벌 주요경제지표 부진 등 악재가 존재하지만 이미 노출된 상태로 20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한다면 대형주 중심 매수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 제한적인 국내수급과 상승모멘텀이 낮은 현상에서는 중장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농협, 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억5000만원 상당 입장권 구매

광주·전남지역 농협이 오는 17일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억 5000만원 상당 입장권을 구매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과, 김일수 광주본부장, 서옥원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나용석 무안 삼향농협 조합장은 지난 11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방문해 입장권을 구매하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농협이 구매한 입장권은 농업인 조합원과 농업계 고등학생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 본부는 박람회장에 이동식 현금 입출금기 4대를 설치하고 ▲농업농촌 홍보관 운영 ▲농축산물 수출상담회 및 구매약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7~27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대에서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광주본부 등은 지난 11일 전남도청에서 '2019국제농업박람회' 성공기원 입장권 구매 행사를 열고 2억5000만원 상당 입장권을 구매했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전남 농축협 내부통제강화 실천결의

사고예방·복무기강 확립

광주·전남지역 농·축협이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실천 결의를 했다.

1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는 "지난 11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농·축협 내부통제업무 담당자와 지역검사국 직원 등 160여 명과 함께 '2019년 내부통제강화 실천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규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장이 참석해 조합감사위의 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협동조합

신 경영이론'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내부통제 강화 실천 결의를 한 뒤 ▲조합감사위원장·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의 특강 ▲내부통제·감사실무 강의 등에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농·축협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 및 조직문화 혁신을 넓혀가자"며 "신뢰 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도의회 사업 설명회

재해재난 대응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사업·어촌뉴딜300 협조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태풍 등 재해예방과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이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초청해 '농어촌공사 주요사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등 도의회 농수산위원 10명이 참석했다.

박종호 전남본부장은 공사의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태풍 등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와 수계연결, 배수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농업·농촌 안전을 위한 사업의 예산확보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농수산위원회에 '어촌뉴딜300'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남 농업·농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공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회는 물론 지자체, 농어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